

▶ 동학혁명 123주년 맞아... 창무극 '천명'

'외쳐라... 만민 평등을'

'사람이 곧 하늘이며, 모두가 평등한 세상' 120여년 전에 동학농민혁명군이 꿈꾸었던 세상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다룬 창무극(천명)이 오는 12~13일 정읍황토현전적지 야외특설무대에 올려진다. 공연은 저녁 7시 45분부터 140분간. <천명>은 동학혁명 123주년을 맞아 펼쳐지는 '제50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의 일환으로 공연된다. 공연은 전봉준이 관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처형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에필로그까지 총 2부(각부 8장)로 구성돼 있다.

천명은 도올 김용옥 선생이 대본을, 박범훈 선생이 작곡을 담당했다. 조종달 연출감독, 왕기석 제작총감독, 류기형 연출가를 비롯해 전북도립국악원예술단·정읍시립정읍사국악단·(사)마당극패우금치 등 도내 예술인 230여 명이 참여한다. 공연 무대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관군을 대파한 황토현 전투 장면. 황토현은 동학농민군이 전주 관군을 맞아 최초로 싸운 곳으로 시혈건 황토현이 온통 산을 뒤덮고 있는 황토연이다. 이곳에 미리 진을 치고 있던 전봉준과 동학농민군들은 전주에서 관군이 기습해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서 허수아비를 만들고 흰 천을 씌워 동학농민군 병

12일부터 정읍황토현전적지서 동학혁명 역사적 의미 다뤄 황토현 전투장면 무대로 재현

사들이 것처럼 관군을 승리를 거둔 것이다. 황토현 전투는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가장 큰 성과이며 의미 있는 출발점이었다. 만주먹이나 다름없는 농민군이 관군과 맞서 승리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 이는 동학농민군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왕기석 제작총감독은 "동학은 흙에서 싸웠고, 황토현은 동학농민군의 전적지

라며 이를 무대화 했다고 설명했다. 무대는 25톤 트럭 50대 분량의 흙이 투입됐다. 그는 "1994년 국립극장에서 초연 이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해 무대에 올리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동학은 전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일"이라며 "123주년을 맞아 도립국악원 예술단과 함께 편을 크게 벌여보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했다. 이어 "작품은 탄탄한 스토리와 음악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면서 이런 대작이 계속해서 무대에 올려 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공연은 무료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천명'은 '2017 세계소리축제'에 초청돼 3차례 무대에 오른다. /정해은 기자



도립미술관, 일반인 대상 원로작가 6인 특강 마련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은 2017년 상반기 일반인 교육프로그램 '원로작가 6인 특강'을 마련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현재 도립미술관에 전시중인 '전북의 원로작가' 전과 연계해 진행된다. 특강은 전시참여 작가인 원로작가 6인을 강사로 초청, '원로작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주제로 열린다. 오는 10일 오후 3시 박남재 선생을 시작으로 11일 송계일, 12일 방의길, 17일 홍순무, 18일 김종범, 19일 한봉립 작가의 강연이 이어진다. 특강은 전복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원숙한 작품을 구축한 작가의 농밀한 예술세계를 들려 주는 자리로 수강자·관람객의 자유로운 참여 및 강의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작가의 작품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유로운 토크형식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수강자의 질의 및 답변 순서도 마련된다.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작가의 예술세계와 대중이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도민이 미술관과 좀 더 친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신청은 전화접수로 가능하다. *문의 290-6876. /정해은 기자

뮤지컬 '영웅', 내달 23일 군산예술전당서

영웅이 그리워지는 시대, 진정한 영웅이 웰메이드 뮤지컬로 돌아왔다. 군산예술의전당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내달 23일과 24일 이틀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뮤지컬 영웅을 올린다. 뮤지컬 '영웅'은 안중근 의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창작 뮤지컬로 2009년 LG아트센터 초연을 통해 '더뮤지컬어워즈'와 '한국 뮤지컬대상'에서 각각 12개 부문씩 노미네이트되어 6관왕씩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함께 인정받은 바 있다. 그 후에도 각종 뮤지컬 시상식을 석권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로써의 입지를 확보했다. 이 작품은 1909년 10월 29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을 중심으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목격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 바치는 영웅의 모습과 함께 생존본능으로 두려움에 떠는 인간 안중근의 면모를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번시즌 캐스팅은 영원한 안중근이라 불리는 배우 정성화와 젊고 패기 있는 청년의 이미지를 잘 살린 영리한 캐스팅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이지훈이 출연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뮤지컬 영웅은 VIP석 11만원 R석 7만원 A석 5만원으로 오는 19일까지 예매시 조기할인혜택이 주어지며 인터넷예매(티켓링크 1588-7890)와 현장예매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아쟁이 들려주는 '즉흥적 멋' 느끼러

국립민속국악원 박지용 '정담' 13일 국악원 풍류마루서 공연

대풍류·박종선류 아쟁산조 등 선배 국악원 단원들도 연주회에 합류

국립민속국악원(박호성 원장)은 오는 13일 국악원 풍류마루에서 박지용의 아쟁 '정담'을 토요국악초대석으로 마련한다. 이날 공연은 국악연주단 지도단원 박지용의 무대로 관악기 연주 중심이 되는 대풍류, 산조중에 감정표현이 풍부하고 섬세한 박종선류 아쟁산조, 김재현 단원의 가야금 병창 팔도유랑가, 춘향가 중 사랑가, 무속음악의 대표격인 아쟁시나위반주에 맞춰 추는 살풀이, 서용석 명인이 작곡한 신민요 '꽃피는 새 동산', '신사

절가'를 새롭게 편곡한 기악합주곡을 선보인다. 이들 곡 중 '박종선류 아쟁산조'는 즉흥적인 멋이 뛰어나며 애절한 감정의 농도가 짙게 표현돼 있다. 이번 연주회에는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인 허진(피리), 구주영(대금), 장지연(해금), 이진(가야금), 김성주, 박태영(타악), 임재현(가야금병창), 이애숙(살풀이) 등이 함께 한다. 전남대, 조선대 교육대학원, 우석대 박사과정을 수료한 박지용은 지난 1994년부터 국립민속국악원 아쟁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박종선류 아쟁산조 음반인 '할현정담'(2013)을 발매하기도 했다. 공연은 무료로 선착순으로 예약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ECO융합섬유연구원 2017년 4~6월 복합섬유소재관련 기업 재직자 교육

“에코융합섬유연구원(Korea Institute of Convergence Textile)은 섬유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소재개발을 선도하여 미래를 준비해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기술개발 및 사업분석 **연구원 주요 사업** **전문인력 양성**

- 시제품 생산
- 기술, 정보제공
- 디자인
- 창업기업지원
- 지식재산권
- 연구용역 수행

CEO 및 재직자 교육 안내	
일시	기술역량강화세미나 : 재직자 대상
4월 18일	하이브리드 복합 섬유소재 염가공 기술동향
5월 2일	3D프린팅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방안
일시	생산/연구장비 활용 실습교육 : 재직자 대상
4월 19일 ~ 21일	화학적 분석장비(SEM-EDX, GC/MS 등)
5월 17일 ~ 19일	물리적 분석장비(균제도, 태, 인장강도, SEM 등)
일시	기업기술경영 역량강화교육 : CEO 및 관리자 대상
4월 25일 ~ 26일	글로벌 시장 대응형 경영혁신
5월 23일 ~ 24일	섬유제품 생산관리

* 상기 교육은 기업신청에 따라 상세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육문의 및 신청 : Tel. (063) 830 - 3579 E-mail : sulhwa9280@kictex.re.kr

[54888]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 639번지 (서동로 594)
 Tel. (063) 830 - 3576 Fax. (063) 830-3540 www.kictex.re.kr

※ 본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복합섬유소재산업 역량강화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ECO융합섬유연구원